

고시원 인기강사 각광  
광주지법 김종복 판사  
법원 직원에 실무 강의



사법시험 합격 후  
고시원에서 '인기  
강사'로 불렸던 판  
사가 이제는 함께  
근무하는 법원 직원  
들을 상대로 법률강  
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종복(36) 판  
사는 오는 20일부터 5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광주지방법원 실무관 및 참여관을  
위한 자체 실무교육 강사로 나선다.

이번 교육은 사무관·주사·주사보 등  
참여관과 서기, 서기보 등 실무관들이  
법률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돋고자 마련  
됐다.

김 판사는 직원들에게 ▲요건사실론  
총론 ▲대여금 반환 청구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등 분쟁 유형별 실무지식을 전달하  
게 된다.

사법연수원 31기인 김 판사는 1999년  
가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2000년  
3월 연수원에 입소하기까지 5개월 동안  
서울 신립동 고시 학원에서 민사법에  
대해 강의한 경험이 있어 일부 법관도  
‘반 농담’으로 이번 교육 수강을 희망할  
만큼 주변의 기대가 크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서법석 전 차관, 동신대 강단에



서법석(57) 전 교육과학  
기술부(옛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객원교수 신분  
으로 동신대 강단에 섰다.  
7일 동신대에 따르면 서  
전 차관은 올해 2학기부터  
그동안의 행정 경험과 교  
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생 대상의 ‘교  
육정책연구’ 강의를 하고 있다.  
서 전 차관은 광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75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 사학  
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 김찬종 교수 '후즈 후' 등재



전남대학교병원 소아정  
소년과 김찬종 교수가 최  
근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2009년판’(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6th Edition, 2009)에 등재됐다.  
김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칼리포니아대  
학(UCSF) 연수과정을 거쳐 현재 대한소아과  
학회·대한소아내분비학회·미국내분비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한가족 한동문 “함께 가니 큰 힘 돼죠”

### 모청용씨 가족 4명, 목포대 생약과 동문 수학

“우리 가족은 목포대 생약과 동문, 같은 길 함께 걸어 큰 힘이 돼  
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 등 일가족 4명이 모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동문이어서 화제다. 특히 지난해 2월 졸업한 아버지를  
빼고는 모두 재학 중이어서 더 큰 관심을 끈다. 주인공은 목포대  
생약자원학과 동문 선우배인 모청용(45)씨 가족.

이 ‘특별한 가족’이 목포대 생약자원학과 동문이 된 것은 아버지  
모씨의 생약에 대한 열정과 권유 때문이었다.

지난해 2월 목포대 생약자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남대 대학  
원 식물생명공학과에서 양파의 생리 활성물질을 연구 중인 모씨는  
아들 기호(23)씨에게 후배(?)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취업을 원하던 기호씨는 아버지의 권유를 뿐만 아니라 대학  
원 식물생명공학과에서 양파의 생리 활성물질을 연구 중인 모씨는  
아들 기호(23)씨에게 후배(?)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생약에 대한 모씨의 열정은 아들뿐 아니라 딸 태라(22)씨와 부인  
권영옥(43)씨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딸은 현재 3학년, 권씨는 2  
학년으로 일가족 모두가 ‘한 대학 동일학과 재학’이라는 기네스북  
에 올랐다. 모씨는 “대학원을 마치고 한옥시범마을과 연계해 하브체  
험마을을 만들고자 사업을 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먼저 닦아 놓은 길을 함께 걷게 돼 보람을 느  
끼며 조언이 필요할 때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가족이 있



가족 모두가 동문인 모청용씨 가족. 원쪽부터 부인 권영옥, 딸 태라, 모씨와 아들 기호씨.

어 많은 도움이 된다”며 일가족이 같은 학과에 다니는데 따른 장점  
이 많다고 활짝 웃었다. 무안군 운남면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며 작  
물 재배와 목축업을 함께 하고 있는 모씨는 군 내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양과 재배농으로 유명하다.

모씨는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주민들에게 전하고 우리 토양에  
맞는 약초를 심어 상품화하려고 마을 주민들과 약초를 시범 재배하  
고 있다. 모씨는 “대학원을 마치고 한옥시범마을과 연계해 하브체  
험마을을 만들고자 사업을 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보이스피싱 전문 목포경찰서 지능팀 경찰관들. 원쪽  
부터 박영섭 경위, 임정운 경장, 김영재(팀장) 경위, 김상후 경사.

## “보이스 피싱 꼼짝마”

### 검거를 전국 최고 목포경찰서 지능팀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빠어난 실  
력을 자랑하는 경찰관이 있어 화제다.

목포경찰서 지능팀 김상후(40) 경  
사와 임정운(37) 경장은 전남지역  
경찰관들 사이에 ‘보이스피싱 선수’  
로 통한다.

목포경찰은 올해만 보이스피싱 중  
국인 피의자 29명을 붙잡아 28명을  
구속하고 통장을 개설·관매한 내국  
인 56명을 불구속해 전남 21개 경찰  
서 실적을 합친 수의 절반을 넘겼다.

전국적으로도 경기·광명·안산 단  
원, 서울 동작,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  
와 함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김 경사는 7일 “온갖 기법을 동원  
해 범죄자를 잡다 보면 보람을 느낄  
때가 많지만 이를 구속하고 실형을

살게 할지언정 정작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점이 아쉽  
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 백산건설 백도인 사장 인재 육성 3억 쾌척

광주와 장흥지역에서 건설업을 하  
고 있는 백산건설(주) 백도인(사진  
오른쪽) 사장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  
해 3년동안 3억여원의 장학금을 쾌  
척,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백 사장은 최근 광주지검 장흥지  
청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주최해 대  
선행정학회 2천만원을 전달  
했다. 지난 2006년 1억원, 2007년 5  
천만원에 이어 탐진장학회에 세번  
째이다.

또 지난해에는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1억원 기탁했으며 장흥  
중학교 축구부 차장 구입을 위해 3천  
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  
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유기물 활용 ‘플라스틱 태양전지’ 개발

### 광주과기원 김동유 교수팀



광주과학기술원 김동유(신소재공  
학과·사진) 교수팀이 유기물을 활용  
한 ‘플라스틱 태양전지’를 개발해 관  
심을 모으고 있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태양전지는  
기존 재료와 비교해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제작 공정을 단순화해  
제작 단가를 20배 낮췄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지난 2000  
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미국  
히거(Alan J. Heeger)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  
한 값진 결과물

중 하나로, 향후 유기 태양전지분야를 포함한 유기 전  
자공학 분야에서 국제적 연구를 선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



## ‘요리 신동’ 남도음식잔치 온다

### 수타면 하루 70인분 뽑는 거제 옥포초등 박재완 군

“성인 주방장도 한번 밀가루 반죽으로 빼기 쉽지 않  
은 4~5인분 면을 거뜬히 빼내지요.”

경남 거제시 옥포초등학교 5학년 박재완(12)군은  
중국 요리 신동으로 불린다.

박군은 3년 전부터 중국 음식점 주방장인 아버지 곁  
에서 수타면을 뽑는 모습을 지켜보고서 지난해부터  
직접 수타면을 뽑기 시작해 지금은 한번 밀가루 반죽  
으로 4~5인분의 면을 짓기까지 뽑아내고 있다. 박군은  
중화요리 주방장 경력 2년차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뜻 수타면을 뽑는 게 ‘뭐 그리 대수냐?’라고 일반  
인들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수타면을 뽑는 데는 강  
한 체력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중화요리 주방장 경력이 27년인 박군의 아버지 박

영수(42)씨는 7일 “중화요리 경력 1년차 주방장도 한  
번 밀가루 반죽으로 4인분을 빼기 어렵다”며 “재원이  
의 수타면 뽑는 실력이 알려져 각종 음식경연대회에  
초대를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박군은 학교에 가지 않는 토·일요일엔 아버지를 도  
와 하루 70인분가량의 면을 뽑는다고 한다.

이 같은 박군의 수타면 뽑는 실력을 전해들은 순천  
시는 오는 9일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 박군을 초청해  
‘요리 신동 박재완군 수타면 뽑기’ 이벤트를 가질 계획  
이다. 박군은 이날 행사에서 2~3시간 동안 멋진 손놀  
림으로 수타면 70인분가량을 뽑을 예정이다.

박군은 “올해부터 열심히 요리학원에 다녀 우리나라  
리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kwangju.co.kr

## 광주시 ‘세계 관광의 날’ 기념 행사

## 북광주우체국 야구회 우정사업본부대회 우승



광주시는 7일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제35회 세계관광의 날 기념 행  
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시는 관광업체 종사자와 공무원 등에게  
광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  
시 동구 금남로 271 202-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족

▲최종연씨 장남 태화(광주 종  
도서관) 김인기씨 장녀 현옥(전남  
도선거관리위원회) 양=12월(일) 낮  
12시30분 삼목웨딩홀 4층 장미홀.

▲노병록씨 장남 훈준군 유상윤  
씨 장녀 혜진양=11월(토) 낮 12시  
50분 베니스웨딩컨벤션 1층 꿈에그  
린홀.

▲곽선온씨 장남 민근(신한은행  
전주지점) 김용식씨 장녀 민경(영  
광원) 양=11월(토) 낮 1시 웨딩  
의 전당 금호 30층 아도니스홀.

▲주봉원(광복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씨 장남 용휘군 방열중씨  
장녀 진경양=11월(토) 낮 1시30분,  
남구 봉선동 고백교회.

▲손명자씨 차남 서한성군 김점숙  
씨 3녀 장미례양=12월(일) 낮 12시  
베니스웨딩컨벤션 1층 꿈에그린홀.

### 동창·동문회

▲북성중 9회 동창회(회장 장우  
성) 월례회=9일(목) 오후 6시30분  
해태식당. 062-655-3688.

▲동신고 총동창회(회장 손철봉)  
체육대회=12일(일) 오전 9시 모교  
운동장. 062-224-1461.

▲목포중·고등학교 재광 동창회  
(회장 최영중) 제2회 비릉 광주 체육  
대회=12일(일) 오전 10시 광주교  
운동장. 062-375-1429, 010-  
460-4170.

▲제광 영광김씨 종친회(회장 김  
인규) 월례회=9일(목) 오후 7시 백  
운산회관. 011-640-5224.

▲전주최씨 광주·전남 대동 회수회  
=11일(토) 오전 11시 광주공원 뒷편  
전주최씨 회수정. 017-602-2867.

### 종친회

▲남양승씨 광주 종친회(회장 송  
천일) 월례회=9일(목) 오후 7시 쌍  
촌동 소답식당. 062-375-1429, 010-  
460-4170.

▲재광 영광김씨 종친회(회장 김  
인규) 월례회=9일(목) 오후 7시 백  
운산회관. 011-640-5224.

▲전주최씨 광주·전남 대동 회수회  
=11일(토) 오전 11시 광주공원 뒷편  
전주최씨 회수정. 017-602-2867.

▲대전·부산·광주·전남·제주 종  
친회 월례회=9일(목) 오후 7시 대전  
동부구 대전종합운동장. 042-222-  
3000.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